

고려사이버대 “4차산업혁명 이끌 창의인재 양성”

고려사이버대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부 및 학과를 전면 개편했다. 또 정교한 수업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한다.

2022학년도 학부·학과 전면 개편 폭발적 수요 '소방안전학부' 신설 현장 중심의 디자인·보건의료학부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전문성 업



고려사이버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올해 기존 교육과정을 융합, 전문화하고 학부를 전면 개편 및 신설했다.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위 사진)과 온라인 강의 촬영 현장. 사진제공 | 고려사이버대



●2022학년 교육과정 융합·전문화

고려사이버대는 2022학년도에 기존 교육과정을 융합, 전문화했다. 개편 학부는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제어공학부(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열유체·에너지공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 모바일디자인) ▲보건의료학부(보건행정, 보건교육·돌봄, 보건의료AI빅데이터) ▲인재개발학부(평생교육전공, 직업능력개발전공, LC2코칭전공)다. 신설 학부로는 ▲소방안전학부(소방방재공학, 산업안전공학)가 있다.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첨단 공학 분야는 학부로 확대 개편해 미래 교과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자인학부와 보건의료학부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전문화를 추진했다.

인재개발학부는 평생교육에서 코칭까지 학생들이 계획에 맞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에 사회 안전 문제의 대두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안전학부를 신설했다. 공학 분야 교과과 연

계해 미래에 필요한 첨단 소방안전 기술을 가르칠 계획이다.

●최첨단 스튜디오서 촬영

고려사이버대는 270여 명의 교수진이 620여 개 과목을 가르친다. 학습수요 분석 단계부터 강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수업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

강의 개발에는 학과 교수뿐 아니라 교수설계·디자인·영상 제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는 교수법·학습법 연구와 강의 품질 관리, 교수지원프로그램과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이 운영되고 검토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도 뛰어나다. 고려사이버대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7개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 소니코리아와

협력해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실현된 원형 스튜디오를 구축했으며, 화상 회의가 가능한 원격회의실을 오픈해 강의와 세미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재학생의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위한 컨설팅,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사이버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려사이버대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미래에너지, 해외취업 등과 관련된 우수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부 주관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고,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에는 교육으로 국가경쟁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융합' 강의 특화 대학

고려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미래기술경영 전공)에서는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을 포괄하는 융복합적 교육 모델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기획, 처리, 분석, 활용을 다루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

사이버대 최초로 개설된 인공지능(AI) 전공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 및 서비스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미래기술경영 전공에서는 4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통산업과 4차 산업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에 대해 다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융합전공'부터 사이버대 최초의 '미래학부'까지

창의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 주력 빅데이터·AI 등 유기적인 학습 비교과 프로그램 무료 제공도

고려사이버대는 미래형 창의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기존 학부 및 학과 이외

에 크리에이터, 소프트웨어교육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분야의 전공 학위를 합리적 이수학점에 취득할 수 있는 '융합전공' 제도를 운영하며 진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이버대 최초의 '미래학부'를 개설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미래기술경영 전공의 유기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정보대학원'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학습해 이를 비즈니스,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노동과 교육 그리고 자연과학에 적용하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양

성한다. 특히 재학생들에게 '비교과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정규 교과과정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창의'(Creativity)와 '융합'(Convergence), '자기주도'(Self-Controlled), '실천'(Practice), '소통'(Communication), '공동체'(Community) 등 고려사이버대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 역량(6COR)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고려사이버대는 온라인으로 학·석사 취득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 고려사이버대

온·오프 연계 실무역량 강화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 '특독'

온라인만으로도 학·석사 학위 취득 가능

고려사이버대는 고등교육 보편화에 기여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설립했다. 개교 당시 7개 학과, 796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해 현재 14개 학부, 1만1716명(2021년 4월 기준)의 재학생 수를 자랑하는 4년제 정규 대학으로 발전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현장실습, 특강 등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온·오프 연계교육을 제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강점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20년간의 원격 강의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이어가며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의 가장 큰 강점은 온라인으로 학·석사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필요시 실습·특강 등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부 과정으로는 ▲전기전자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정보소프트웨어학부 ▲소방안전학부 ▲디자인학부 ▲미래학부 ▲경영학부 ▲상담학부 ▲사회복지학부 ▲보건의료학부 ▲인재개발학부 ▲실용어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 ▲법·경찰학부가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융합정보대학원이 있다. 학부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제2의 진로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주부, 은퇴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저렴한 등록금도 강점이다. 학점 당 6만6000원이며, 최저 이수학점은 132학점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학에 졸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졸 직장인과 협력기관 임직원 및 협력교 동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에게는 장학 혜택을 준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8일(월) 음력: 2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쥐 | 소 | 호랑이 | 토끼 | 용 | 뱀 |
|---|---|---|--|---|---|
| <p>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비통재천 이견대인이라 했다. 운이 최고의 상태에 있으니 실력 있는 협조자를 만났기 좋다. 결실의 탐을 쌓는 형상이다.</p> | <p>직업상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다.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라. 그렇지 못하면 이득이 크지 못하고 현상유지로 끝나기 쉽다. 오늘은 용의 날로 천살에 해당한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p> | <p>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p> | <p>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p> | <p>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호랑이띠와 말띠를 만나라. 꽃을 피우는 날이 될 것이다.</p> | <p>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가 말띠 생이면 더욱 확률이 높다.</p> |
| <p>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p> | <p>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맞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을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p> | <p>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p> | <p>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p> | <p>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감정을 자제하라.</p> | <p>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너그럽게 응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을 만난 돼지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버티려는 기운이 생기는 날이다.</p> |

| 오늘의 날씨 | | | 28일(월) |
|------------|------------|---------------------|--------|
| 서울 0/0 | 인천 0/0 | 춘천 0/0 | |
| ☀️ 2 14 | ☀️ 3 11 | ☀️ -2 15 | |
| 강릉 0/0 | 대전 0/0 | 전주 0/0 | |
| ☀️ 4 13 | ☀️ 1 15 | ☀️ 1 14 | |
| 광주 0/0 | 대구 0/0 | 부산 0/0 | |
| ☀️ 3 15 | ☀️ 3 14 | ☀️ 6 14 | |
| 창원 0/0 | 제주 0/0 |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
| ☀️ 4 13 | ☀️ 7 12 | 날씨 최저 최고온도 | |